

그리스 종교와 철학의 관점에서 살펴 본 신약성서의 영혼의 여행¹⁾

조재형*

1.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그리스 종교와 철학의 관점에서 신약성서 영혼과 영혼의 여행이 어떻게 그리스도교의 신학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사상사 비평법’²⁾을 주요 방법론으로, 역사비평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사상사 비평법은 인류 역사의 긴 시간 속에서 ‘영혼’에 대한 사상(idea)이 어떻게 각 영역에서 표현되고, 보존되고, 변화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영혼과 영혼의 여행에 대한 기원을 추적한다. 전 세계적으로 ‘영혼’은 ‘신’(god)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보편적인 개념이다.³⁾ 서구 철학과 종교에서 영혼은 유사한 열개와 속살을 공유하는 환생, 윤회, 부활 사상의 토대이자 불변하는

* 케이씨(그리스도) 대학교 강사, 신약학

1)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8035504).

이 논문은 또한 ‘2020년 한국신약학회 제111차 정기학술대회’(2020년 10월 30일)에서 발표했던 것을 수정하였다. 의미 있는 조언과 논찬을 해준 차정식 박사님과 김성종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2) Arthur O. Lovejoy, *The Great Chain of Being: A Study of the History of an Id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6; repr., 1948), 1-23; 사상사비평법은 “문화 이론”을 추적하여 “의미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Mark Bevir, *The Logic of the History of Idea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2.

3) 배국원, “‘영혼’에 관한 최근의 철학적 논의들,” 『복음과 실천』 47:1 (2011), 56.

실체이다.⁴⁾ 특별히 그리스도교의 부활과 관련된 신앙에서 영혼은 인간의 본질과 불멸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와 목적은 중요한 주제이다.⁵⁾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그리스 종교와 철학과 헬레니즘 전통에서 신의 파편으로 간주되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결정이 담겨있다는 인간론의 기초를 제공한다. 비록 데카르트는 기계적인 물질적인 자연과 완전히 다른 영적인 영혼을 분리시켰으나,⁶⁾ 그는 뉴턴이 확립한 근대과학의 결정론에 맞서서 영혼은 인간 자유의지의 최후의 보루로 간주하였다.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뉴턴 법칙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우연과 자유의지가 있는 영혼을 제시해서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에서 세상을” 구하는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이다.⁷⁾ 데카르트가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영혼을 ‘마음’(mind)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쓴 이후로, 철학자들은 ‘마음’을 영혼을 설명하는 용어로 더 선호한다.⁸⁾ 하지만 유대교적 배경뿐만 아니라 그리스로마의 철학과 종교의 토양에서 성장한 그리스도교는 신약성서와 나그함마디 문서를 통해서 영혼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발전시켜 왔다.⁹⁾ 왜냐하면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영혼에 대한 다양한 개념은 가장 논쟁적인 주제였으며, 오늘 날에도 영혼의 여행은 영지주의 문서를 판단하는 시금석으로 사용할 수 있다.¹⁰⁾ 그러므로 이 논문은 초기 그리스도교 때부터 기록되었던 신약성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미 심리학, 생태학, 과학, 철학, 세계종교 안에서 중요한 화두가 된 영혼의 본질뿐만

4) B. 몬딘, 『인간: 철학적 인간학 입문』, 허재윤 역 (서울: 서광사, 1996), 262-267.

5) François Bovon, “The Soul’s Comeback: Immortality and Resurrection in Early Christianity,” *Harvard Theological Review* 103:4 (2010), 405.

6) Vergilius Ferm, ed. *An Encyclopedia of Religion* (Paterson: Littlefield, Adams & Co., 1964), 729.

7) 김상욱, 『떨림과 울림』 (서울: 동아시아, 2018), 151.

8) 배국원, “‘영혼’에 관한 최근의 철학적 논의들,” 62.

9) 물론 구약성서를 기반으로 하는 유대교적 토양도 무시할 수 없지만, 기원전 4세기 이후 유대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룩한 헬라세계에 급속하게 편입되어,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헬레니즘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 또한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 오리게네스(Origenes),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등은 영혼의 실체성과 영혼 실체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왔다. 몬딘, 『인간: 철학적 인간학 입문』, 262-271.

10) 조재형,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 (서울: 동연, 2020), 281-285.

아니라 영혼의 여행을 그리스 종교와 철학의 관점에서 추적한다.

2. 그리스 종교와 철학에서 영혼과 영혼의 여행

고대 그리스 철학과 종교가 어떻게 신약성서의 영혼의 여행에 작용하였는가를 살피기에 앞서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영혼의 개념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실상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영혼 개념은 오랜 세월 천천히 형성되어 오다 중세와 근대를 거치면서 구체화된 면이 많다.¹¹⁾ 왜냐하면 오르페우스교, 디오니소스 제의,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영혼과 영혼의 여행에 대한 사상의 흐름이 신약성서 저자들의 사상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배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영혼은 프쉬케(ψυχή, *psyche*)로 ‘신체적 기능을 활기차게 가능하게 하는, 즉 생명의 호흡으로 지상에서의 ‘생명’을 의미한다.¹²⁾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은 인류가 본격적인 문명 생활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¹³⁾ 구석기시대 후기에는 사후의 삶에 대한 신앙을 확인해 주는 매장이 일반화되었다.¹⁴⁾ 사후의 삶과 관련해서 “인간 영혼의 운명을

11) 장영란, “고대 그리스 철학 이전의 영혼의 개념,” 『철학연구』 64 (2004), 54.

12) Walter Bau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William F. Arndt and F. Wilbur Gingrich, trans. 3r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1098; 장영란, “헬레니즘철학과 초기 그리스도교의 영혼 혼련 개념,” 126-27; 그리스 문헌에서 영혼과 비슷한 용어로는 감정과 의식의 원천으로 가슴에 존재하는 ‘튀모스,’ 실천적 사유로서의 생각을 나타내는 ‘프레네스,’ 튀모스와 프레네스에 비해 더 지적인 특징을 가지는 ‘누스’ 등이 있다. 이들은 영혼과 달리 죽으면 사라진다. 장영란, 『그리스 신화와 철학으로 보는 영혼의 역사』 (과주: 글항아리, 2010), 54-79.

13) Rohde, *Psyche*, 3; 프랑코 칸타브라의 동굴벽화가 보여주듯이 약 3만 년 전의 구석기인들은 수렵, 어로와 채집생활을 하면서 죽은 자들을 매장하였다. 두골을 포함한 뼈는 사람이나 동물의 영혼과 생명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여 중요한 의례적 가치를 지녔다. 미르치아 엘리아데, 『세계종교사상사1: 석기시대에서부터 엘레우시스의 비의까지』, 이용주 역 (서울: 이학사, 2014), 27-28.

태양의 행로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죽은 자의 사체는 동쪽을 향해서 묻었다.¹⁵⁾ 즉, 구석기 후대부터 인간은 죽음 이후의 세계와 인간 존재의 본질로서 영혼에 대한 인식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본격적으로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서사시에 인간 영혼의 존재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가 그리스인들의 종교를 주조한 시인들이라고 주장하였다.¹⁶⁾ 이들의 서사시들은 초기 그리스의 신의 개념과 인간의 영혼과 본성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¹⁷⁾ 호메로스가 묘사하는 영혼은 “단지 어떤 것을 살아있게 해주는 것”이지만, 생명보다는 죽음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왜냐하면 인간이 죽을 때 영혼이 몸을 떠나는 ‘영혼의 여행’을 하기 때문이다.¹⁸⁾ 예를 들면, 제우스의 아들 사르페돈이 그리스의 장군 트레폴레모스의 창에 넓적다리를 맞고 죽을 때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났다(『일리아스』 5.696). 비슷하게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죽일 때 헥토르의 “혼백[영혼]은 남자의 힘과 젊음을 뒤로하고 자신의 운명을 통곡하며 그의 사지를 떠나 하데스의 집으로 날아갔다”(22.361-363).¹⁹⁾ 아킬레우스는 자신을 설득하러 온 오뒷세우스에게 “사람의 목숨[영혼]은 한번 이빨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약탈할 수도 구할 수도 없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법이요.”라고 말한다.²⁰⁾ 호메로스 서사시에서 “영혼은 인식 능력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며 단순히 생명의 원리로만”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르기까지 오래 동안 지속되

14) 엘리아데, 『세계종교사상사1』, 32.

15) 엘리아데, 『세계종교사상사1』, 33.

16) 천병희, “헤시오도스 작품의 이해,” 『신들의 계보』, 천병희 편역 (고양: 도서출판 숲, 2012), 274.

17) S. G. F. Brandon, “Homer,” in *A Dictionary of Comparative Religion*, S. G. F. Brandon, e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0), 336; 조재형, 『그리스 로마종교와 신약성서』, 92.

18) 장영란, “고대 그리스 철학 이전의 영혼의 개념,” 55.

19) 본 논문에서는 천병희가 번역한 『일리아스』를 사용한다. 호메로스, 『일리아스』, 천병희 역 (파주: 도서출판 숲, 2015).

20) 호메로스, 『일리아스』, 272.

었다.²¹⁾ 호메로스에게 영혼은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소멸하거나 파괴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존재한다.²²⁾ 살아 있는 인간의 몸에 영혼은 머무르게 되는데 주로 그 자리는 생명과 명예와 관련된 머리이다(『일리아스』 14.160-163; 『오뒷세이아』 11.152-154, 22.218).²³⁾ 구체적으로, 인간의 신체 중 가장 신적인 것이며 주인 노릇하는 머릿속 뇌에 뿌리 박혀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죽음의 순간에는 입을 통해서, 또는 사지를 통해서 영혼이 빠져나가 죽은 몸과는 다른 차원으로 존재한다.²⁴⁾ 그럼에도 호메로스가 묘사하는 영혼은 의식이 없으며 반만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어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죽은 자들의 땅으로 내려간다.²⁵⁾ 영혼은 인간이 죽을 때 그 육체를 벗어나 허상처럼 존재하기도 하고, 꿈속의 환영으로 존재하지만, 어떤 특별한 인간들에게는 다르게 적용된다는 생각을 호메로스는 보여준다.

예를 들면, 『오뒷세이아』 4권 561-568에서 노인으로 나타난 바다의 신은 헬레네의 남편 메넬라오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하데스 대신에 죽음을 보지 않고 복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신들이 사는 엘뤼시온 들판으로 가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의 영혼은 그들의 육체와 분리되지 않고 살아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간다.²⁶⁾ 죽은 자들이 가는 ‘복된 자들의 섬’ 또는 ‘엘뤼시온 들판’에 대해 헤시오도스의 『일과 날』은 분명하게 이곳은 영웅종족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묘사한다. 여기에서 헤시오도스는 “신들과 필멸의 인간들은 한곳에서 생겨났다”(108)는 사실을 황금종족의 시대, 은(銀)종족의 시대, 청동종족의 시대, 영웅종족의 시대, 철의 종족의 시대를 통해서 설명한다.²⁷⁾ 황금종족, 은종족

21) 장영란, “고대 그리스 철학 이전의 영혼의 개념,” 56.

22) 장영란, “고대 그리스 철학 이전의 영혼의 개념,” 57.

23) 장영란, “고대 그리스 철학 이전의 영혼의 개념,” 58; 본 논문에서는 천병희가 번역한 『오뒷세이아』를 사용한다.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천병희 역 (파주: 도서출판 숲, 2014).

24) 장영란, “고대 그리스 철학 이전의 영혼의 개념,” 59-60.

25) Rohde, *Psyche*, 24.

26) Rohde, *Psyche*, 56.

은 순서대로 신들과 더욱 가깝다. 청동종족과 철의 종족은 열등하여 악과 폭력을 일삼는다. 현재의 인간들은 바로 이 철의 종족에 속한다(『일과 날』 109-202). 비록 영웅종족은 청동종족 다음에 만들어졌으나 청동종족보다 더 의로워서 반신(半神)으로 불려진다. 이들의 일부는 트로이 전쟁 등으로 죽었지만, 일부는 죽음을 겪지 않고 오케아노스 옆의 엘뤼시온 들판에서 복락을 누리면 살아간다(『일과 날』 157-72). 어윈 로데는 『일과 날』에 나오는 다섯 세대의 인간 종족들에 대한 묘사가 영혼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믿음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 영웅들의 영혼이 불멸하다면 이들은 죽은 뒤에도 자연스럽게 숭배의 대상이 된다.²⁸⁾ 로데가 분석한 엘뤼시온 들판으로 이동한 영혼들에 대한 숭배와 영혼불멸의 개념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은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로데의 연구는 그리스의 영혼 불멸 사상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²⁹⁾

그리스 종교에서 불멸하는 영혼의 존재와 죽은 영웅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상은 디오니소스 제의와 오피즘을 통해서 더욱 발전한다. 디오니소스 제의는 아폴로 제의만큼 오래되었다. 다른 그리스 밀의 종교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것과 비교해서 디오니소스 제의는 에우리피데스(Euripides)가 기원전 4세기에 쓴 『박카이』(*Bacchae*)에 잘 나타난다. 심지어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도 디오니소스를 언급하고 있다.³⁰⁾ 디오니소스는 두 개의 다른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디오니소스는 테베의 카드모스와 하르모니아의 딸인 세멜레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질투심에 불탄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노인의 모습으로 세멜레를 찾아가서 뱃을 놓는다. 즉, 세멜레로 하여금 제우스의 진짜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게 만든다.

27) 헤시오도스의 『일과 날』은 천병희가 헤시오도스의 네 개의 작품들(『신들의 계보』, 『일과 날』, 『헤라클레스의 방패』, 『여인들 목록』)을 『신들의 계보』라는 한 권의 책 제목으로 편집하여 출판한 것을 사용한다. 헤시오도스, 『신들의 계보』, 천병희 역 (고양: 도서출판 숲, 2012), 106.

28) Rohde, *Psyche*, 78-79.

29) Reis, "The Journey of the Soul," 32-33.

30) 조재형, 『그리스-로마종교와 신약성서』, 139-140.

세멜레는 무슨 약속이라도 들어주겠다는 제우스의 맹세를 받은 후 경솔하게도 최고신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 인간 세멜레가 제우스의 찬란한 광채를 견디지 못하여 불타 죽게 될 때, 제우스는 세멜레의 태중에 있는 디오니소스를 꺼내 자기 허벅지 속에 봉한 후 몇 달 후에 태어나게 만든다.³¹⁾ 두 번째 이야기에서 헤라가 보낸 타이탄은 아기 디오니소스를 갈기갈기 찢어서 잡아먹는다. 제우스는 이 타이탄을 번개로 태워 죽인 후 그 숯덩이에서 디오니소스의 잔해를 모아서 그를 다시 살린다(또 다른 전승에서는 아테네가 구해낸 디오니소스의 심장을 제우스가 먹어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렇게 디오니소스는 두 번 태어난 것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는 두 번이나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영웅이다. 뿐만 아니라 디오니소스는 인간의 영혼을 상징하는 아리아드네를 저승에서 구해서 “신화적인 결혼을 통해 영혼과 합일”한다. 디오니소스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결혼 등이 영육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지만,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의 신화는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Zagreus)라는 명칭 속에서 오피즘과 연결된다.³²⁾ 아폴로도로스는 오피즘의 창시자 “오르페우스는 또 디오니소스의 비의(秘義)를 창안했다”라고 전한다.³³⁾ 즉, “오르페우스는 ‘디오니소스의 예언자’로 불렸다.”³⁴⁾ 이것은 디오니소스 추종자들이 오르페우스를 죽였다는 전승과는 충돌되지만 디오니소스 제의와 오피즘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³⁵⁾

만약 아폴로도로스의 기록대로 오르페우스가 디오니소스 제의를 창안했다면 그는 기존의 디오니소스 제의를 새롭게 바꾸었을 것이다.³⁶⁾ 특별히,

31) 엘리아데, 『세계종교사상사1』, 543; 헤시오도스, 『신들의 계보』, 89.

32) Walter Burkert, *Greek Religion*, John Raffan, 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297, 300.

33) 아폴로도로스, 『원전으로 읽는 그리스신화』, 천병희 역 (고양: 도서출판 숲, 2012), 30.

34) 엘리아데, 『세계종교사상사1』, 566.

35) 미르치아 엘리아데, 『세계종교사상사2: 고타마 붓다에서부터 기독교의 승리까지』, 최종성·김재현 역 (서울: 이학사, 2014), 251.

36) 장영란, “오르페우스교와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혼윤회설,” 『철학과 현상학』 26 (2005), 138; 비슷한 맥락에서 차정식은 “피타고라스 종교가 오르페우스 종교의 개혁 차원에서 생성되었다면, 오르페우스 종교는 바쿠스 종교의 갱신이란 차원에서 발전했다.”고 분석한

오피즘은 디오니소스 제의에 모호하게 남아있는 ‘영혼의 불멸’을 확립하였다.³⁷⁾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들이 호흡할 때 “바람들에 의해 이끌어진 영혼이 우주로부터 신체 내부로 들어간다”는 오르페우스의 말(로고스)을 비판한다(410b 28-32).³⁸⁾ 즉, 오피즘에서는 영혼이 육체보다 먼저 존재하고 육체와 분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³⁹⁾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적은 시는 “세상의 창조와 죽음 이후의 영혼, 지상에서의 죄에 대한 그 영혼의 심판과 형벌, 그리고 다른 살아있는 몸을 통한 영혼의 재생”을 다루고 있다.⁴⁰⁾

오피즘의 영향은 먼저 피타고라스와 엠페도클레스 (Empedocles)에서 시작되어 플라톤에게서 최고 정점에 이른다.⁴¹⁾ 오피즘은 피타고라스와 피타고라스 학파가 주장하는 “불사와 윤회, 하데스에서의 영혼의 처벌, 천상으로의 최종적인 귀환 등에 대한 믿음과, 채식주의, 정화 의례의 중시, 금욕주의”에 영향을 주었다.⁴²⁾ 플라톤은 인간의 죽음 이후의 영혼의 운명과 심판,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다른 세계에서 영혼이 환생한다는 오피즘의 사상을 받아들인다. 특히 플라톤의 ‘크라틸루스’(Cratylus 420B)에서는 몸은 영혼의 무덤이라는 오피즘의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⁴³⁾ 플라톤은 오피즘과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상으로 이어지는 영혼불멸성과 “윤회와 재생에 대한 가르침”을 체계화했다.⁴⁴⁾ 플라톤에게 실재는 비물질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참된 자이는 몸 안에 갇혀있으며, 이것은 몸과 구별되는 불멸의 영혼으로 규정되었다.⁴⁵⁾ 그는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영혼은 불멸하여 파멸될 수 없으며,

다. 차정식, 『신약성서의 환생 모티프와 그 신학적 변용』, 53.

37) 엘리야데, 『세계종교사상사 2』, 256.

38)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관하여』, 유원기 역 (서울: 궁리출판, 2012), 113. 한글로 ‘학설,’ ‘주장,’ ‘말씀’ 등으로 번역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단어는 ‘로고스’이다.

39) 장영란, “오르페우스교와 피타고라스학파의 영혼윤회설,” 138.

40) John Morrison, “Orphism,” in *Encyclopedia of Philosophy*, Donald M. Borchert, ed.,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6), 42.

41) Morrison, “Orphism,” 43; 차정식, 『신약성서의 환생 모티프와 그 신학적 변용』, 61.

42) 엘리야데, 『세계종교사상사2』, 269-270.

43) Morrison, “Orphism,” 43.

44) 장영란, 『그리스 신화와 철학으로 보는 영혼의 역사』, 296; 엘리야데, 『세계종교사상사2』, 276-277.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다음 세상에서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Phaedo* 106.d-e).⁴⁶⁾ 플라톤의 영혼 이해는 그의 절대신에 대한 이해를 떠나서 설명할 수 없다. 그에 의하면 그 신은 궁극적인 선(善)으로 모나드(단일자)와 동일하다. 이 모나드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수가 아니며, 전체의 부분도 아니다(*Parmenides* 137.d).⁴⁷⁾ 이 홀로 존재하며 불멸하며 말해질 수 없는 영적인 모나드로부터 인간의 영혼은 방출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신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시 모나드로 돌아가는 여행을 하게 된다.⁴⁸⁾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인간 영혼들이 여행을 한다고 전제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의 행위에 따라 악한 영혼들은 여러 종류의 육체에 감금되는 환생을 여러 번 하게 되고, 선한 영혼들은 그 환생의 고리를 끊고 모나드로 영원히 돌아가서 다시 하나가 된다고 주장한다(*Republic* X 614.c).⁴⁹⁾ 지금까지 논의한 영혼과 영혼의 여행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신약성서에 나타난 영혼의 여행을 살펴보겠다.

3. 신약성서의 영혼의 여행

신약성서 자체에서 헬라어 프쉬케(*ψυχή*)는 103번 등장하는데(사도행전과 복음서에서만 53번), 칩실인역(LXX)에서 네페스(*nepeš*)를 프쉬케로 번역하여 750번 이상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다.⁵⁰⁾ 우선 프쉬케는 그리스-로마 문헌에서와 비슷하게 “이 땅에서의 생명, 또는 생명의

45) Burkert, *Greek Religion*, 322.

46) Edith Hamilton and Huntington Cairns, eds.,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Including the Letters*, vol. LXXI, Bollingen Series (New York: pantheon books, 1961), 88.

47) Hamilton and Huntington Cairns, eds.,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932.

48) 조재형,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 45, 『그리스-로마종교와 신약성서』, 198을 참조하라.

49) Plato, “Republic,” in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Including the Letters*, Edith Hamilton and Huntington Cairns, ed., (New York: Pantheon Books, 1961), 839.

50) Horst Balz and Gerhard Schneider, eds.,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ume 3*, 3 vols., vol. 3 (Grand Rapids: W. B. Eerdmans, 1993), 501.

원리”⁵¹⁾로 주로 나오고 “지상에서의 삶 또는 삶 자체,”⁵²⁾ “내적 인간 삶의 중심,”⁵³⁾ “사람 자체”⁵⁴⁾ 등으로 나온다.⁵⁵⁾

예수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 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요 6:63)고 말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전 15:50)라고 말한다.⁵⁶⁾ 이 두 구절이 자리하고 있는 전후 맥락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육에 대한 경멸과 영육 이원론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수는 몸을 죽이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조언한다(마 10:28). 반면에 쿨만은 널리 알려진 ‘영혼의 불멸성’은 그리스도교가 가장 크게 잘못 이해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⁵⁷⁾ 그에 의하면 영혼 불멸설은 그리스 철학의 교리이고, 그리스도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혼이 불멸할 수 있다. 그리스인들은 죽음을 친근하고 긍정적으로 여기지만, 그리스도교에선 죽음은 적대적인 것이어서 그 저주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⁸⁾ 쿨만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나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는 플라톤의 가르침을 더 따른다고 비판한다.⁵⁹⁾ 그러나 앞에 인용한 예수와 바울의 말과 앞으로 살펴볼 신약성서 본문들은 쿨만의 주장과는 반대의 사실을 가리킨다.

51) 계 6:9, 8:9, 20:4; 눅 12:20; 행 2:27, 2:31, 20:10.

52) 마 2:20, 20:28; 롬 11:3, 16:4; 막 10:45; 요 10:11, 15, 17; 13:37; 15:13; 1요 3:16; 빌 2:30; 행 15:26.

53) 눅 12:19; 마 26:38; 막 14:34; 행 2:43.

54) 롬 2:9, 13:1; 유 15; 행 2:41, 27:37; 벧전 3:20.

55) Bauer, *Greek-English Lexicon*, 1098-1099.

56) 본 논문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한글 성서는 새번역을 사용한다.

57) Oscar Cullmann, *Immortality of the Soul or Resurrection of the Dead? : The Witness of the New Testament* (London: Epworth Press, 1958), 15.

58) Cullmann, *Immortality of the Soul or Resurrection of the Dead?*, 15-25.

59) Cullmann, *Immortality of the Soul or Resurrection of the Dead?*, 7.

3.1. 바울 서신의 영혼의 여행

신약성서 27권 중에서 최소한 7권을 저작한 바울은 영혼(psyche)이라는 용어 자체는 겨우 11번 밖에 사용하지 않지만, 그의 이원론적 인간 이해와 “영”관련 어휘들(*pnuema*, *pneumatikos*)을 통해 영생할 생명의 실체로서 불멸하는 영혼의 존재⁶⁰⁾와 영혼의 여행 이후의 삶에 대한 많은 암시를 준다.⁶¹⁾ 예를 들면, 바울은 겉사람(*ὁ ἔξω ἡμῶν ἄνθρωπος*)과 속사람(*ὁ ἔσω ἡμῶν*)을 비교하면서 겉 사람이 보이는 것이라면 속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τὰ μὴ βλεπόμενα*)이라고 주장한다(고후 4:16-18, 강조는 필자가 함).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겉 사람과 속 사람의 구분은 구약성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헬라 세계에서 인간을 육체와 영적인 부분으로 구분하는 전통에서 온 것이다.⁶²⁾ 보이는 않는 것이 “초자연적이고, 비물질적이고, 영적인 것”이라면 보이는 것은 자연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이다.⁶³⁾ 이 두 대립되는 존재의 정체는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οἰκία τοῦ σαήνους*)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οἶκον ἀχειροποίητον αἰώνιον ἐν τοῖς οὐρανοῖς*)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2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4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강조는 필자가 함).

여기에서 바울은 눈에 보이는 장막집을 인간의 몸으로, 보이지 않는 새로

60) 차정식, 『신약성서의 환생 모티프와 그 신학적 변용』, 259.

61) Reis, “The Journey of the Soul,” 235-236.

62) Reis, “The Journey of the Soul,” 239.

63) Alfred Plumm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Second Epistle of St Paul to the Corinthians*, S. R. Driver, Alfred Plummer, and C. A. Briggs, ed.,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Edinburgh: T & T. Clark, 1951), 144.

운 거처는 영혼이 거하는 하늘의 집으로 묘사한다. 장막집을 인간의 몸으로 이해하는 것은 피타고라스 전통과 그리스 문헌들에서 많이 발견된다.⁶⁴⁾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 존재인 영혼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육체에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혼이 거하는 집(영적인 플레로마의 8위 또는 9위)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⁶⁵⁾ 인간의 영혼은 마치 감옥과 같은 장막집 안에 갇혀서 신음하며 괴로워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는 영혼의 여행을 갈망한다.⁶⁶⁾ 이것은 생명이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하는 것이며, 그 승리의 주체가 “불멸하는 영혼이라는 사실을”⁶⁷⁾ 4절 후반부는 확인해준다. 또한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을 구분 한다(고전 2:14-16). 바울은 살을 가진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만(고전 15:50)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⁶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닌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이다.⁶⁹⁾ 고린도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15:1), 그들은 미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경향을 보였고(15:19), 4장 8절에 근거해서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주장한다.⁷⁰⁾ 그들 중에서 죽은 사람의 부활과 부활한 몸의 상태

64) Plummer, *the Second Epistle of St Paul to the Corinthians*, 142.

65) 나그함마디 서고에 포함되어 있는 『제8위와 9위에 관한 강화』에 의하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처음부터 일곱 번째 영역까지는 인간을 지배하는 아르콘(지배자)들이 지배하고 있으나, 여덟 번째 영역부터 신적 영역이 시작된다. 여덟 번째 영역은 조디악(Zodiac)과 고정된 별들이 있고, 아홉 번째 영역에는 천사들과 영혼들이 하느님(최상신)을 찬양하는 곳이며, 하느님 자체는 열 번째 영역에 거주한다. Birger A. Pearson, *Ancient Gnosticism: Traditions and Literatur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289.

66) 조재형,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 218-219.

67) 차정식, 『신약성서의 환생 모티프와 그 신학적 변용』, 176.

68) 조재형, “나그함마디 문서가 영지주의 사상과 신약성서 연구에 주는 의미와 도전” 73; “영지사상에서 살펴본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적대자,” 『신약논단』 20:2 (2013), 455-456.

69) 벌턴 L. 맥, 『수사학과 신약성서』, 유태엽 역, 믿음신서 (서울: 나단, 1993), 88-93.

70) Charles H. Talbert, *Reading Corinthians: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on 1 and 2 Corinthians* (New York: Crossroad, 1992), 98.

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15:35), 바울은 물질적인 몸은 썩어질 것이고, 영적인 몸은 썩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15:37-44). 이 물질적 몸은 “씨앗 또는 더 정확하게 종자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썩어져야만 영적인 몸이 나타날 수 있다.⁷¹⁾ “물질적인 몸”(15:44)은 극적인 바뀔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고 썩을 수 밖에 없는 “살”(15:50)을 포함한다.⁷²⁾ 바울은 분명하게 몸의 부활은 영적인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영혼은 육체의 장막을 벗고 영혼이 상승하는 여행을 통해서 영적인 몸(집)을 유산으로 받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15:50). 그러므로 바울이 제시하는 “영적인 몸”은 전통적 영혼불멸사상의 내용을 ‘몸’이라는 형상에 주입한 것⁷³⁾이기에, 영혼은 하늘로의 여행을 통해서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영원한 집(oixíαν)으로 들어간다.⁷⁴⁾

바울은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빌 2:1-11)에서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 땅에 하강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상승시켰다고 주장한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8절은 예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체’(μορφή θεοῦ)를 가지고 존재했기에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였으나 자신을 비워(ἐκένωσεν)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모양’(σχήματι)이 되었다고 기록한다. 하나님의 본체를 가졌다는 표현은 예수가 창조 사건 이전부터 존재하였음을 드러낸다.⁷⁵⁾ 하나님의 본체는 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선재적인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kenosis)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다시 높여(ὑπερύψωσεν) 존귀하게 만들어 모든 것의 주가 되게 한다(2:9-11).

71) Maurice F. Wiles, *The Divine Apostle: The Interpretation of St Paul's Epistles in the Early Church* (London: Cambridge University, 1967), 47.

72) John A. T. Robinson, *The Body: A Study in Pauline Theology* (London: SCM Press, 1963), 31-32.

73) 차정식, 『신약성서의 환생 모티프와 그 신학적 변용』, 168.

74) 차정식, 『신약성서의 환생 모티프와 그 신학적 변용』, 175.

75) R. G. Hamerton-Kelly, *Pre-Existence, Wisdom, and the Son of Man : A Study of the Idea of Pre-Existence in the New Testa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73), 168.

높아다는 뜻으로 쓰인 헬리어 ‘휘페뤼프소센’은 하나님이 예수의 영혼을 다시 상승시켰다는 의미를 가진다. 기본적으로 예수의 선재, 하강과 다시 상승의 구도는 영혼의 여행을 담고 있다.⁷⁶⁾

3.2. 요한복음의 영혼의 여행

요한복음에서 ‘영혼의 여행’은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1장에서 집중적으로 나온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며, 영적으로 존재한다(요 4:22-24).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물질적인 거주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어떠한 공간적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진리로 예배해야 된다(요 4:24). 호메로스나 구약성서의 하나님과 달리, 요한복음의 하나님은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제물을 받아 흠향하지도 않는다.⁷⁷⁾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그리스 철학자들(특히 플라톤)이 정의하는 모나드로서의 최상신과 비슷하다. 그래서 모나드인 하나님을 마주하던 로고스(1:1)는 이 땅 아래로 내려온다. 유대교 전통에서 이 로고스를 ‘호크마’(지혜)나 ‘다바르’(말씀) 등으로 해석하는 것과는 달리, 그리스 철학에서 이 로고스는 “우주적 이성과 통하는 바, 우주적 영혼의 총체”이다.⁷⁸⁾ 모나드가 방출되어 물질 안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요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1:14).

76) Reis, “The Journey of the Soul,” 249.

77)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신약성서 전체에서 구약의 중요한 하나님 이름인 “엘로힘”과 “야훼”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신약성서 기자들은 하나님을 삼층 세계관에 거하는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상을 거부하고, 영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현경식,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기독교적 신론,” 『신약논단』 21:4 (2014), 956을 참조하라.

78) 차정식, 『신약성서의 환생 모티프와 그 신학적 변용』, 204.

헬라어 본문은 이 구절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Καὶ ὁ λόγος σὰρξ ἐγένετο καὶ ἐσκήνωσεν ἐν ἡμῖν, καὶ ἐθεασάμεθα τὴν δόξαν αὐτοῦ,
δόξαν ὡς μονογενοῦς παρὰ πατρός, πλήρης χάριτος καὶ ἀληθείας

모나드의 바로 다음 층위인 로고스(λόγος)는 급강하하여 인간의 육체(σὰρξ)가 되어(ἐγένετο) 사람들 사이에 거주하였다(ἐσκήνωσεν). 모나드의 섬광은 여러 층위를 거쳐서 보통 사람들의 육체로 도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하게 나타나지만, 예수는 로고스로서 곧바로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은혜(χάριτος)와 진리(ἀληθείας)가 충만한(πλήρης) 아버지의 유일한 것(μονογενοῦς)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낸다.⁷⁹⁾ 헬라어 ‘모노게누스’ (μονογενοῦς)를 한글 성경은 모두 ‘독생자’(개정), ‘외아들’(새번역, 공동), ‘외아드님’(천주교)로 번역했지만 원문은 ‘아버지로부터의 유일한 것’ 또는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뜻이다. 버나드(J. H. Bernard)에 의하면 모노게누스가 받은 영광은 사실은 “영원한 아버지가 그의 아들과 공유했던 영광”이다.⁸⁰⁾ 모나드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방출된 로고스이기 때문에 영광 자체도 모나드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요한은 예수가 로고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다가(1:1-14) 다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는 영혼의 여행을 보여준다(8:14; 14:5).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이며(6:62), 자신을 보내신 이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7:33, 16:5). 특이한 것은 이러한 하강과 상승은 예수에게만 유일하다고 기록한다.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요3:13). 2-4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지식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방출되어 이 땅에

79) 조재형,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 166-167.

80) John Henry Bernard and Alan Hugh McNeile,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Vol. 1, 2 vols.*, vol. I (Edinburgh: T. & T. Clark, 1928; repr., 1985), 23.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대조된다. 또한 예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써 육체의 몸을 버리고 영혼의 상승을 한다(19:30). 그리고 부활한 예수는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만난다. 요한복음 자체는 다른 복음서처럼 명확하게 예수가 부활 후에 승천했다는 기록은 남기지 않지만,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조언하고(20:29), 베드로에게 목양을 위임하고(21:15-19) 승천하는 것으로 끝마친다. 피타고라스 종파와 플라톤의 철학에서 보여주는 영혼의 계속되는 환생이 아니라 예수가 이미 두 번이나 승천을 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영혼의 여행을 드러낸다.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에 의하면 승천한 예수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그러니 예수는 미래의 재림까지 포함하면 하강과 상승을 세 번까지 하게 되지만, 요한복음 저자는 미래의 재림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다. 차정식에 의하면, “요한복음은 예수의 죽음을 본래 그 영혼이 기원한 본향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묵시문학적 재림의 모티프를 보여주지 않는다.... 묵시문학적 재림 모티프의 부재를 대신하여 저자가 제시한 것이 바로 보혜사(로사)의 재림”이다.⁸¹⁾ 보혜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14:26)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15:26)이며, 동시에 예수가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이다(14:16; 16:7). 이는 미래의 예수가 하늘의 법정에서 보혜사가 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⁸²⁾ 모나드인 하나님으로부터 방출된 예수를 통해서 다시 보혜사 성령이 방출된다는 의미도 가진다. 또한 “예수 자신이 하나의 보혜사였다는 말”⁸³⁾도 되므로, 하나님, 예수, 성령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방출된 영이 결국에는 동일한 신적 본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예수는 자신이 천상의 하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바리새와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81) 차정식, 『신약성서의 환생 모티프와 그 신학적 변용』, 126.

82) John Henry Bernar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Vol. 2* (Edinburgh: Clark, 1928; repr., 1985), 545.

83) 차정식, 『신약성서의 환생 모티프와 그 신학적 변용』, 127.

모른다(요 8:14).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나온다(14:5, 16:5).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는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관련하여 제자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다.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가는 곳에 그 길(ὁδόν)을 너희가 **알리라(οἴδατε)** 5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개역개정』, 강조는 필자가 함).

예수는 자신이 하늘로 올라갈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아들을 믿으라고 말하면서, 모나드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알린다(1-2절). 아버지의 집은 천상의 플레로마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길(ὁδός)을 알아야 한다. 길을 의미하는 헬라어 ‘호도스’의 기술적인 의미는 ‘상승’이다.⁸⁴⁾ 사실 요한복음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를 나타내는 중요한 낱말들이며, 동시에 영지주의 전통에서 신적 계시자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⁸⁵⁾ 예수는 자신을 통해서만 모나드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요 14:6).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혼의 여행을 할 때 필요한 신비한 지식은 바로 예수 자신을 알고(οἶδατε)

84) April D. De Conick,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Jn 20:29), Johannine Dramatization of an Early Christian Discourse,” in *The Nag Hammadi Library after Fifty Years: Proceedings of the 1995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Commemoration*, John D. Turner, ed., (Leiden: E.J. Brill, 1997), 384-387을 Reis, “The Journey of the Soul,” 281에서 재인용; 호도스는 ‘길’, ‘도로’, ‘고속도로’ 등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여행’, ‘삶의 방식’ 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Bauer, *Greek-English Lexicon*, 691.

85) Elaine Hiesey Pagels, *The Gnostic Gospels* (New York: Vintage Books, 1989), 119.

믿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예수와 예수의 말씀이 진리(ἀληθειαν)이고, 이것이 사람들을 자유롭게(ἐλευθερώσει) 하기 때문이다.

3.3. 마가복음의 영혼의 여행(4:1-20, 8:36, 14:51-52 등)

마가복음에는 선제적인 예수의 모습은 간접적으로 나오지만,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은 예수의 가르침에서 나온다.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막 4:1-20)에서 예수는 ‘씨’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인데, 사람들이 사탄의 방해와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혼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친다.⁸⁶⁾ 예수는 천하를 얻어도 영혼(ψυχή)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설교한다(막 8:36).⁸⁷⁾ 이런 관점에서 예수의 수난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뜬금없이 등장하는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의 이야기(막 14:51-52)도 영혼의 여행으로 해석될 수 있다.⁸⁸⁾ 마가복음 14장에 갑자기 등장하는 아마포를 두른 이 청년이야말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름 없는 제자들(바디메오, 가난한 과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등)처럼 예수의 사역을 진심으로 이해한 사람이다. 이 청년이 두르고 있었던 흰 아마포(σινδών)는 이 청년이 물질적으로 부자가 아니라, 그의 본성이 고귀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겉옷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입는 사람의 신분과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세족식에서 예수가 겉옷을 벗는 것은 그의 죽음을 상징하며(요 13:4), 영지주의 문서들에서 몸은 영혼의 겉옷으로 묘사된다. 마가의 예수는 ‘영혼의 여행’의 근거가 되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는 이원론을 중요하게 가르친다(4:1-20; 8:30-38). 이런 관점에서 알몸으로 빠져나간 청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의 명령을 온전

86) 그레고리 라일리, 『하느님의 강-그리스도교 신앙의 원류를 찾아서』, 박원일 역, 21세기 기독교 총서(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5), 238.

87) 한글 성서는 헬라어 ‘프쉬케’를 ‘목숨’으로 번역하고 있다.

88) Riley, *The River of God*, 163-164.

히 수행한 참된 제자이다(8:34-35).⁸⁹⁾ 즉, 이 청년은 예수를 온전히 따르다가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그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 것이다.⁹⁰⁾

3.4. 누가복음의 영혼의 여행

예수는 어떤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영혼이 인간 존재의 본질임을 제시한다(눅 12:16-21). 이 부자는 자신이 이뤘놓은 재물에 대해서 몹시 만족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만족이 한시적이고 무용하다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밤에 네 영혼(ψυχήν σου)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눅 12:20)라는 질문으로 일깨운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영혼을 보내시기도 하지만 걷어 가시기도 하심으로써,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영혼의 여행을 내포한다.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전한다(눅 16:19-31). 이 땅에서 부자는 고운 옷을 입고 진미 성찬을 먹으면서 호화롭게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16:22-23). 부자는 호메로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죽어서 지옥으로 내려가고, 나사로는 헤시오도스가 묘사하는 복된 곳(엘뤼시온 들판)과 같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 한글 성경이 지옥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하데스’로 그리스 세계에서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이다. 그러니 부자와 나사로는 죽어서 그들의 영혼이 하데스와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철학자들이 발전시킨

89) 조재형,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 284-285.

90)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재형,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 203-229를 참조하라.

모나드와 모나드로부터의 방출은 없지만, 영혼의 여행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누기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죄우에 죄수에 한 명씩 같이 달렸다고 보도한다. 그 두 죄수 중 한 명은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23:42)라고 말하고, 예수는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παράδεισος)에 있을 것이다.”고 대답한다. 낙원을 가리키는 헬라어 ‘파라데이소스’는 칠십인역(LXX)과 필로의 저서에서 에덴동산을 가리키고, 신약성서에서 “축복받은 초월적인 장소”를 의미한다(눅 23:43; 고후 12:4; 계 2:7).⁹¹⁾ 예수는 이 죄수의 죄를 궁극적으로 용서함으로써 “죽음 너머에 있는 숨겨진 영역”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한다.⁹²⁾ 전후 문맥과 이후의 상황은 이 죄수의 몸은 죽었지만 그의 영혼이 낙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온다.⁹³⁾

마가와 마태와는 달리, 누가의 예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πνεῦμά μου)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παράτίθηναι).”(23:46)라고 말하고 숨을 거둔다. 누기는 프쉬케 대신에 프뉴마를 사용해서 예수의 영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는 표현으로 묘사한다. 프쉬케가 인간에게 갖는 신적 섬광의 파편의 의미가 있다면, 프뉴마는 인간과 하나님의 영을 모두 포함하는 보다 큰 개념을 가지고 있다.

4. 나가는 말

인간 존재의 실체로서 영혼은 서구 철학과 종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그리스 배경에서 신약성서의 영혼을 추적하다보면, 그것의 기원이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그리고 오피즘과 디오니소스 제의를 포함하는 그리스의

91) Bauer, *Greek-English Lexicon*, 761.

92) Balz and Schneider, eds.,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ume 3*, 17.

93) 누가복음에서의 파라데이소스와 영혼의 여행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 차정식 교수님께 감사들 드린다.

밀의종교들, 소크라테스를 거쳐서 플라톤에게 이어지는 영혼선재설과 불멸설에 잇닿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해석을 기반으로 신약성서 기자들(바울, 요한, 마가, 누가)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인류 구원의 목적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벧전 1:9)라는 사상을 도출하여,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그리스도교의 사상을 전파하였다. 영혼선재설과 영혼불멸설에 대한 몇몇 학자들의 반대도 있지만, 요한과 바울을 비롯한 신약성서 기자들은 영혼의 여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리스 종교와 철학의 전통을 계승한 영혼관을 산출하였다. 먼저 요한복음 기자는 ‘모나드’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받아들여서, 모나드로부터의 첫 방출을 예수로 설명한 후(요 1:1-18), 예수가 이 땅에서 모나드로부터 하강하여, 다시 상승하는 영혼의 여행을 제시한다.⁹⁴⁾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1:13)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모나드의 방출이 희미하게 인간들에게까지 도달하지만,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해석하여 영지주의자들과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14:6).⁹⁵⁾

바울은 인간이 죽으면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새로운 천상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함으로써 모나드의 존재와 영혼의 여행을 그린다. 바울이 주장하는 ‘영적인 몸’도 결국에는 영혼불멸설을 그리스도교 신학 안에서 해석한 것이다(고전15:44). 마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4:1-20)를 통해서 영육 이원론을 제시하고, 발가벗고 도망친 청년의 이야기(14:51-52)에서는 진정한 제자도의 결과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영혼의 여행을 보여준다. 누가는 부자의

94)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대 영지주의 사상은 이 모나드의 방출이 여러 층위를 거쳐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이 방출은 모나드 다음의 신적 계시자들(아들, 소피아, 셋 등)과 천사들을 거쳐서 모든 인간들에게 도달하고, 모든 인간들은 죽음 이후에 모나드를 향한 영혼의 여행을 한다고 주장한다.

95) 물론 바실리데스와 영지주의자들도 성공적인 영혼의 여행을 마치는 영혼들이 천에 한 명, 만에 두 명이라고 매우 비관적으로 묘사하지만, 요한 기자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모나드(아버지)에게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마들렌 스키텔로, 『영지주의자들』, 이수민 역 (철곡: 분도, 2005), 61-63; 조재형,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 117를 참조하라.

이야기와 예수의 운명하는 순간에 대한 묘사 안에서 영혼을 보내고 거두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낙원(파라데이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영혼의 여행을 기정사실화한다.

그러므로 그리스 종교와 철학의 관점에서 신약성서의 영혼의 여행을 살펴보면, 신약성서 기자들이 받아들였던 영혼선재설과 불멸설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즉, ‘영혼의 여행’이라는 개념은 영혼선재설과 불멸설의 근거를 제공하고, 후에 이것을 토대로 발전한 모나드로서의 하나님과 모나드로부터 영혼이 방출된다는 것까지도 설명해준다. 고대 영지주의 사상이 핵심에 ‘모나드’에 대한 신학과 ‘영혼의 여행’이 있다면, 신약성서의 영혼의 여행은 신약성서 자체가 고대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⁹⁶⁾ 이러한 접근은 신약성서의 영혼의 여행에 대한 인문학적 해석을 시도하여 창의적이고 다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⁹⁷⁾

<주제어>

그리스 종교, 그리스 철학, 영혼의 여행, 영혼불멸설, 영혼선재설, 복음서, 바울, 모나드

<Keywords>

Greek Religion, Greek Philosophy, The Journey of the Soul, Immortality of Soul, Pre-existence of Soul, the Gospel, Paul, Monad

* 접수일 2021년 1월 26일, 수정일 2021년 3월 19일,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7일

96) 조재형,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 47-48.

97) 이것들이 어떻게 초기 그리스도교의 신학과 사회적 정황을 설명하는지, 또 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였는지 추적하여 초기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지속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상욱, 『떨림과 울림』, 조현욱 역, 서울: 동아시아, 2018.
- 라일리, 그레고리, 『하느님의 강-그리스도교 신앙의 원류를 찾아서』, 박원일 역, 21세기 기독교 총서,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5.
- 몬딘, B, 『인간: 철학적 인간학 입문』, 허재윤 역, 서울: 서광사, 1996.
- 맥, 벌턴 L, 『수사학과 신약성서』, 유태엽 역, 믿음신서, 서울: 나단, 1993.
- 박경미, “사로잡힌 영혼과 신의 과오-영지주의 우주론에 대한 인간학적 성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7 (2003), 87-116.
- 박승찬, “생명의 원리에서 인격의 중심으로,”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67 (2011), 59-157.
- 배국원, “‘영혼’에 관한 최근의 철학적 논의들,” 「복음과 실천」 47:1 (2011), 55-80.
- 성종현, “인간의 본질과 죽음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분리,” 「장신논단」 44:1 (2012), 59-86.
- 스코펠로, 마들렌, 『영지주의자들』, 이수민 역, 칠곡: 분도, 2005.
-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관하여』, 유원기 역, 서울: 궁리출판, 2012.
- 아폴로도로스, 『원전으로 읽는 그리스신화』, 천병희 역, 고양: 도서출판 숲, 2012.
- 엘리아데, 미르치아, 『세계종교사상사1: 석기시대에서부터 엘레우시스의 비의까지』, 이용주 역, 서울: 이학사, 2014.
- _____, 『세계종교사상사2: 고타마 붓다에서부터 기독교의 승리까지』, 최종성·김재현, 서울: 이학사, 2014.
- 이동규, “고대 이집트인의 사후 세계와 영혼 이해,” 「중앙사론」 31(2010), 197-227.
- 장영란, “고대 그리스 철학 이전의 영혼의 개념-그리스 서사시와 서정시 및 비극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64(2004), 53-73.
- _____, 『그리스 신화와 철학으로 보는 영혼의 역사』, 파주: 글항아리, 2010.
- _____, “오르페우스교와 피타고라스학파의 영혼윤회설,” 「철학과 현상학」 26 (2005), 131-158.
- _____, “헬레니즘철학과 초기 그리스도교의 영혼 훈련 개념,” 「현대유럽철학연

- 구」 29(2012), 123-154.
- 전명수, “마음 · 몸 · 영혼과 사회에 대한 뉴에이지적 접근,”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50(2011), 103-136.
- 조재형, “고대 영지 사상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론’(神論)에 끼친 영향-나그함마디 문서와 신약성서의 영지주의적 본문을 중심으로,” 『신학연구』 69(2016), 87-110.
- _____, “고대 영지 사상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기독교론에 끼친 영향-신약성서의 영지주의적 본문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78(2017), 53-79.
- _____, 『그리스-로마종교와 신약성서-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사상사』, 서울: 부크크, 2018.
- _____, “나그함마디 문서가 영지주의 사상과 신약성서 연구에 주는 의미와 도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8(2018), 57-80.
- _____, “영지사상에서 살펴본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적대자,” 『신약논단』 20:2(2013), 443-478.
- _____,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 서울: 동연, 2020.
- 차정식, 『신약성서의 환생 모티프와 그 신학적 변용』, 서울: 한들출판사, 2007.
- 천병희, “헤시오도스 작품의 이해,” 천병희 역, 『신들의 계보』, 고양: 도서출판 숲, 2012.
- 쿨만, O, “靈魂不滅인가 죽은者의 復活인가,” 전경련 편역, 『靈魂不滅과 죽은者의 復活』, 전경련 편역, 서울: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79.
- 헤시오도스, 『신들의 계보』, 천병희 역, 고양: 도서출판 숲, 2012.
- 현경식,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기독교적 신론,” 『신약논단』 21:4(2014), 955-992.
-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천병희 역, 파주: 도서출판 숲, 2014.
- _____, 『일리아스』, 천병희 역, 파주: 도서출판 숲, 2015.
- Balz, Horst, and Gerhard Schneider, eds,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ume 3*, 3 vols, Vol. 3, Grand Rapids: W. B. Eerdmans, 1993.
- Bauer, Walt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Translated by William F. Arndt and F. Wilbur

- Gingrich, 3rd e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Bernard, John Henr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Vol. 2, Edinburgh: Clark, 1985.
- Bernard, John Henry, and Alan Hugh McNeile,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Vol. 1. 2 vols, Vol. I, Edinburgh: T. & T. Clark, 1985.
- Bevir, Mark, *The Logic of the History of Idea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Bovon, François, "The Soul's Comeback: Immortality and Resurrection in Early Christianity," *Harvard Theological Review* 103:4 (2010), 387-406.
- Brandon, S. G. F., "Homer," In *A Dictionary of Comparative Religion*, edited by S. G. F. Brand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0.
- Burkert, Walter, *Greek Religion*, Translated by John Raff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 Cullmann, Oscar, *Immortality of the Soul or Resurrection of the Dead?: The Witness of the New Testament*, London: Epworth Press, 1958.
- De Conick, April D.,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Jn 20:29), Johannine Dramatization of an Early Christian Discourse," In *The Nag Hammadi Library after Fifty Years: Proceedings of the 1995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Commemoration*, edited by John D. Turner, Leiden: E. J. Brill, 1997.
- Ferm, Vergilius, ed, *An Encyclopedia of Religion*, Paterson: Littlefield, Adams & Co., 1964.
- Hamilton, Hdith, and Huntington Cairns, eds,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Including the Letters* Vol. LXXI, Bollingen Series, New York: Pantheon Books, 1961.
- Hamerton-Kelly, R. G. *Pre-Existence, Wisdom, and the Son of Man : A Study of the Idea of Pre-Existence in the New Testamen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1973.
- Lovejoy, Arthur O., *The Great Chain of Being: A Study of the History of an Id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48.
- MacDonald, Dennis R., *Christianizing Homer: The Odyssey, Plato, and the Acts of Andre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_____, *The Gospels and Homer: Imitations of Greek Epic in Mark and Luke-Acts*, The New Testament and Greek Literature, Vol. I,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15.
- _____, *Does the New Testament Imitate Homer?: Four Cases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3.
- _____, *The Homeric Epics and the Gospel of Mark*,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Morrison, John, "Orphism," In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ited by Donald M. Borchert, 42-44,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6.
- Pagels, Elaine Hiesey, *The Gnostic Gospels*, New York: Vintage Books, 1989.
- Pearson, Birger A., *Ancient Gnosticism: Traditions and Literatur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 Plato, "Republic," In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Including the Letters*, edited by Edith Hamilton and Huntington Cairns, New York: Pantheon Books, 1961.
- Plummer, Alfre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Second Epistle of St Paul to the Corinthians*,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Edited by S. R. Driver, Alfred Plummer and C. A. Briggs Edinburgh: T & T. Clark, 1951.
- Reis, David M., "The Journey of the Soul: Its Expressions in Early Christianity," Ph. D. Dissertation,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1999.
- Riley, Gregory J., *One Jesus Many Christs: How Jesus Inspired Not One True Christianity but Many*, Minneapolis: Fortress, 1997.

- _____, *Resurrection Reconsidered: Thomas and John in Controversy*,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5.
- _____, *The River of God: A New History of Christian Origins*, New York: HarperCollins, 2001.
- Robinson, John A. T., *The Body: A Study in Pauline Theology*, London: SCM Press, 1963.
- Rohde, Erwin, *Psyche; the Cult of Souls and Belief in Immortality Among the Greeks*, Translated by W. B. Hillis, London: Kegan Paul, 1925.
- Talbert, Charles H., *Reading Corinthians: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on 1 and 2 Corinthians*, New York: Crossroad, 1992.
- Wiles, Maurice F., *The Divine Apostle: The Interpretation of St Paul's Epistles in the Early Church*, London: Cambridge University, 1967.

<초록>

그리스 종교와 철학의 관점에서 살펴 본 신약성서의 영혼의 여행

조재형

(케이씨 대학교)

서구 철학과 종교에서 영혼은 유사한 열개와 속살을 공유하는 환생, 윤회, 부활 사상의 토대이자 불변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연구만큼 중요한 주제이다. 그리스의 영웅들이 엘뤼시온 들판에서 지복을 누리며 영원히 산다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증언은 당연히 영혼 불멸성에 근거한 영웅숭배 제의를 발전시켰다. 그리스도교의 부활과 관련된 신앙에서 영혼은 인간의 본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었다. 영혼 불멸성에 대한 개념은 논쟁적인 주제였으며, 영혼의 여행은 영지주의 문서를 판단하는 시금석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오르페우스교, 디오니소스 제의,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영혼에 대한 논쟁들을 신약성서의 영혼의 여행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해석을 기반으로 신약성서 기자들(바울, 요한, 마가, 누가)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인류 구원의 목적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벧전 1:9)라는 사상을 도출하여,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전파하였다. 요한과 바울을 비롯한 신약성서 기자들은 영혼의 여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리스 종교와 철학의 전통을 계승한 영혼관을 산출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 종교와 철학의 관점에서 살펴본 신약성서의 영혼의 여행은 영혼선재설과 불멸설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것을 토대로 모나드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이 모나드로부터의 영혼이 방출된다는 것까

지도 알려주기 때문에, 신약성서 자체가 고대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영혼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은 영혼에 대한 신약성서의 기록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사상사적 배경에서 해석하도록 도와준다.

<Abstract>

The Journey of the Soul in the Perspective of Greek Religion and Philosophy

Jae Hyung Cho
(Korea Christian University)

In Western philosophy and religion, the human soul is a research subject as important as God, for it is the foundation of thoughts of rebirth, reincarnation, and resurrection, sharing similar features and frames with the latter. Homer and Hesiod's accounts in which Greek heroes blissfully lived forever in the fields of Elysion had naturally developed the idea of the immortality soul, which later established the cult of heroes. In Christian beliefs on resurrection, the soul is regarded as an essential indicator of human nature. The immortality of the soul has always been a controversial subject, and the journey of the soul is often used as a touchstone for defining Gnostic texts. In particular, debates on the soul among Orphism, the cult of Dionysus, Socrates, and Plato, helped to understand the journey of the soul i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these interpretations, the New Testament writers (such as Paul, John, Mark, and Luke) could forge ideas that the purpose of human salvation through the crucifixion of Jesus Christ is "the salvation of your souls" (1 Peter 1:9). By doing so, they could successfully spread Christianity throughout the Greco-Roman world at that time.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Greek religion and philosophy, the journey of the soul in the New Testament could provide the basis for the pre-existence

and immortality of the soul. This proves that the New Testament itself was probably influenced by ancient Gnostic thoughts that perceived God as the monad and the emission of the soul to be from him. This humanistic approach to the soul helps to interpret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not just literally, but also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ideas.